

거북선 만든 선소에 역사테마정원 조성

13만3484㎡에 테마영상전시관 등 역사체험·휴식 가능 도심 정원 조성

여주시, 195억원 들여 내년 착공



여주시는 총무공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던 선소에 역사테마정원을 조성한다. <여주시 제공>

총무공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던 선소가 역사테마정원으로 조성된다. 여주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92호인 선소 유적지에 선소 테마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여수 선소 유적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던 곳이다. 선소 테마정원은 권오봉 여주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선소 유적지 13만3484㎡에 선소 테마영상전시관을 포함한 탐방로 등 역사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된다. 국·도비 73억원 등 195억원을 투입하며 실시계획 공고를 거쳐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선소 테마영상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600㎡ 규모로 선소의 기록과 역사, 선박의 구조 등을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실

감형 콘텐츠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여주시 관계자는 "선소 유적에 테마정원이 조성되면 역사, 문화, 관광자원 체험 기회를 제공해 관광객 분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고흥군, 백자에 생명 불어넣는 '포슬린아트' 전시회 연다

12~18일 고흥 청춘누리

고흥군은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비한 생활 도자기 예술 '포슬린 아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전시회는 고흥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군민에게는 포슬린 아트 체험과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고흥군민회관 입구의 옛 소방파출소를 리모델링한 '고흥 청춘누리'에서 열린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전시회 첫날인 월요일에는 오후 2시 오픈 할 예정이다. '붓으로 물들이다! 2021 포슬린 전시회'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활동 중인 아티스트 7명이 고흥의 자연과 생활을 표현한 작품과 공모전 참여 작품 등 50여점을 전시한다. 전시장에는 포슬린 아트 체험장을 조성해 관심 있는 청소년이나 군민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포슬린 아트'란 유약이 발린 백색 도자기에 원하는 그림을 그린 다음 800℃ 내외의 가마에서 세밀한 공정으로 여러번 구워 만드는 도자기 공예로

유럽에선 왕실 귀족의 예술로 알려져 있다. 꽃과 동물, 인물과 풍경, 추상화 등 각종 주제로 작품 활동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커피 잔, 접시와 같은 생활용품부터 큰 도자기, 액자, 타일 등 인테리어용품까지 활용성이 다양하다. 이순영 <대한국포슬린아트협회 전남지회장>은 "포슬린 아트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일"이라며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작품을 감상하고 즐기며 배울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순천시, 미세먼지 차단 숲 16.2km 조성

경전선 폐철도 주변·지봉로·울촌산단 일원 11만5200그루 식재

순천시는 올해 65억원을 투입해 경전선 폐철도 주변과 울촌산단단지 일대 등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조감도> '미세먼지 차단숲'은 노후산업단지과 주요 도로변 등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도심 내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성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당 연간 35.7g(에스프레소 한잔)의 미세먼지를 저감 시키며, 경유차 1대의 연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47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는 올해 경전선 폐철도 2.4km, 지봉로 6.2km, 울촌산단단지 7.6km 일대에 가시나무, 느티나무 등 32종 11만52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차단 숲을 조성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높은 미세먼지 농도와 코로나19로 외출 및 실외활동이 힘들어진 시민들에게 숲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며 "특히 2023정원박람회를 대비해 생활권 내 새로운 녹색 복지공간을 조성해 정원 속의 도시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광양주식회사, 태인장학회에 장학금 300만원 기탁

광양주식회사가 최근 태인장학회에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사진> 광양주식회사는 지난 1991년 산업기계 가공 및 제작을 주업으로 창립한 제조회사로 연 매출은 15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남도 스타기업에 선정되는 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다. 김영훈 광양주식회사 공동대표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기탁금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국제와이즈멘 여수오션클럽, 구례 전천경로당에 김치냉장고

국제와이즈멘 여수오션클럽은 최근 구례군 문척면 전천마을 경로당에 15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1대를 전달했다. 국제와이즈멘 여수오션클럽은 친교·교양·봉사를 모토로 활동하는 봉사단체로 복지시설 위문·물품 후원, 집수리 봉사,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여수오션클럽은 지난해 섬진강 수해로 고통받는 문척면 이재민들을 위해 세탁기·라면포트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낭만포차 '여수에 취하다', 한려동에 200만원 후원

여수낭만포차 '여수에 취하다'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시 한려동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한려동주민센터에 200만원을 후원했다. <사진> 연인식 '여수에 취하다' 대표는 "관광객 감소 및 거리두기로 인해 낭만포차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주고자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병중 여수시 한려동장은 "따뜻한 나눔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지역사회의 사랑을 채워 행복한 한려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 옥과농협, 코로나 예방 휴대용 분무소독기 지원

곡성 옥과농협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단체인 3개년 조합원 청년단체에 휴대용 분무 소독기 9대를 전달했다. <사진> 소독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살균·소독 등 생활방역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조합원 청년단체는 기증받은 휴대용 분무 소독기로 마을별 방역을 꼼꼼히 실시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앞장선다. 구정훈 옥과농협 조합장은 "지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조합원 청년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코로나19 방



역을 위해 조합원 청년단체와 협력해 코로나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